

선거유세장 여전히 무관심으로 ‘셀링’

투표, 서울캠 24~26일·경주캠 26일...학생들 적극적 참여 절실

99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이번 주 투표를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캠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투표가 진행되며, 경주캠의 경우 오는 26일 투표가 이뤄진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선거분위기는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좀처럼 고조되지 않고 있다.

서울캠 제31대 총학생회 정·부 회장으로 임후보한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 조의 2차 유세가 지난 18일 오후 5시에 동국관 앞에서 치러졌다.

발언에 나선 김호중·성나현 조는 △총장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 △이월적립금의 내역은 공개돼야 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돼야 한다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룬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동국발전을 위해 2기 범동국 구교운동을 제안하고 이 안에서 △재단정상

화 운동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재정의 투명성 확보 △대학내 진보적 학풍 확립 △동국인의 날 부활 등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학우들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자세로 살아갈 것이다”고 다짐하며 유세를 마쳤다.

이날 유세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영하를 훨씬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 치러졌지만 단상에 오른 후보자와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 모두 시종 진지한 분위기를 잃지 않고 유세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1차 유세와는 달리 후보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또 풍물, 노래, 율동 등의 다양한 문예공연이 마련돼 유세장을 한층 달아오르게 했다. 이들의 마지막 유세는 오늘(23일) 오후 1시 도서관 앞에서 치러진다.

경주캠 제15대 총학생회 후보

로 출마한 기호 1번 이상섭(불교3)·황재영(수교3)조, 기호 2번 조영호(국사3)·최보영(국관3)조의 1차 합동소견발표회가 지난 17일 녹야원에서 치러졌으며, 오는 24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합동소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견발표회에서 ‘상실과 절망의 시대,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저항의 연대’란 기치를 내세운 기호 1번 이상섭·황재영 조는 “대학을 구성해야 하는 주체가 학생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교육에 개입할 권리가 있으며, 민중과 노동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우리들은 이들과의 연대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민주 학생회 건설’을 외친 기호 2번 조영호·최보영 조는 “학교측의 행정적·교육적 부조리에 당당히 맞서 투쟁하고 학생들의 참여로 움직이는 학

생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학부제, 등록금, 식당협상투쟁을 전면 화시키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세는 7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대부분도 선거운동원 뿐이어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서울캠, 학생대책위 결의대회

학생회와 선거운동본부가 연대해 지난 12일 발족식을 치른 학생대책위원회(위원장=이미성·국교4)는 오늘(23일) 총학생회 2차 유세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총장낙점 무효와 이월적립금 내역 공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특히, 이날에는 중단 상황과 현 학내 상황과의 관계에 대한 진관 스님의 연대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하얀 동막... 지난 19일 드디어 첫눈이 왔다. 첫눈으로 덮혀 하얗게 변한 동막에서 학생들은 어느덧 동심으로 돌아간듯, 명진관 앞에서 학생들이 첫눈을 반깁하고 있다. 남대철 기자

김상규(토목공학)교수 동부산대 총장에 임명

김상규(토목공학) 전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 이 동부산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지난 13일 송석구(철학) 총장에게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같은날 박정국(화학공학)교수도 5백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제주대와 학술교류협정

본교는 내일(24일) 제주대(총장=조문부)와 양교간 상호 협력 및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술분야 전반에 걸친 학술교류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한다.

축구부, FA컵 4강진출 좌절

제3회 삼보체인지업 FA컵 대회에서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지난 18일 목동구장에서 부천SK와 경기를 치른 결과 1-0으로 승리를 거둬 아마추어 팀으로는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21일 전남 광양에서 프로팀 전남과의 경기에서 5-0으로 패해 4강 진출이 좌절됐다.

교수회, 총장후보추천 선거 돌입

서울캠 오는 26일·경주캠 오는 25일 1차 유세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총장후보추천선거에 등록한 4명의 후보자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오홍석·지리교육학 이하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해 지난 18일 정식 공고된 가운데 예정대로 다음달 9일 투표를 실시된다.

이번 후보 등록자 4명은 추첨을 통해 각각 △기호1=조희영(경영학) △기호2=신현제(경주캠 영문학) △기호3=홍치유(물리학) △기호5=신용태(일문학)으로 배정됐으며, 기호 4번은 후보자들과 선관위의 합의하에 결번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 유세는 서울캠과 경주캠 각 캠퍼스 최대 2회씩 치를 예정이다.

우수 신입생 유치 위한 고교방문특강

99학년도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서울캠 입학과(과장=오종호)는 고교방문 특강 및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경북고·과천고·서울고 등 수도권 23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 정병조(국민윤리학) 부총장을 비롯 본교 교수들이 참여해 대학생활·

또 다시 시작되는 한총련 죽이기

“구성도 안된 7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니” 대검, 학생회 입후보자 한총련 가담시 검거 방침

대검찰청 공안부(이하 대검)는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운 7기 한총련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 학생회와 재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대검의 이번 결정은 현재 각 대학에서 한창 치러지고 있는 99학년도 학생회 선거에 많은 학교에서 한총련 사수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연이어 당선소식이 들려오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민권공대위(삼일대표=홍근수)는 지난 18일 ‘한총련 청년학생선거 탄압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소속 각 대학은 민주적 절차와 학생대중들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한총

련 이적규정을 철폐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측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발에도 대검측은 이번 결정이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권이 선거과정에서 철폐를 약속했던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측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현 정권이 이 법을 앞세워 학생 대표들을 검거하는 것은 폭력에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또,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공간을 통해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범죄 구성요건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대검의 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번 대검 결정의 대상자인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 운동본부들도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교 서울캠 제31대 총학생회에 입후보한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 조 선운부 측은 “당선후 몇몇 학교들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우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성되기도 전에 이적단체로 규정돼 버린 7기 한총련, 단체를 구성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99년 학생회 후보들에게 이런 압력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측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한총련을 지지한다는 정략을 밝히고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다면, 그들은 이적단체 한총련이 아닌 학생들의 진정한 대표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대신신문 기획광고

유세 일정

서울캠
중앙유세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23일 도서관 오후 1시

경주캠
중앙유세
총학 24일 녹야원 오후 1시
B202 오후 7시

학생 여러분, 선거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서 행사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만이 새로운 희망을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바로 지금!

P.S 아직도 선거정책집을 보지 못했구요?
설마, 입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건 아니겠지요!

투 버 거

서울캠 24일부터 26일까지 각 건물 지정 장소

경주캠 26일 각 건물 지정 장소

동대신문사

보리소

지혜를 실현하는 기쁨

전 해 주(불교대학 불교학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업이고 업에는 반드시 힘이 있으니 이를 업력이라 한다. 이 업력이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업력에 끌려가는 것이다. 각자 짓는 업은 별업이고 함께 짓는 업은 공업이다. 내가 밭을 말 한마디, 손자 하나하나 나의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물론,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정화시키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하는 사람이 있고, 남은 괴롭게하나 자신은 즐거운 사람, 남을 즐겁게 해주나 자신은 희생하여 괴로운 사람, 그리고 자신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가운데서 자신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해주는 자리아타행은 하는 자를 보살이라하여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연기된 존재이니 남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남이 있는 것이다. 자신도 남도 고정불변된 자성이 없어 공(空)한 존재인 줄 오해하여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다른이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곧 자신도 즐거운 일인 것이다. 후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이상적인 인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은 희생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남이 다르지 않은 하나의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이타행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보살의 자리아타행은 나와 남이 다함께 즐거운 존재가 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원행(願行)이다. 그래서 이 원행은 지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비행으로 나타난다. 이 원행에도 힘이 있으니 원력이다. 업력은 도리어 우리를 지배하게 되지만 원력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에 의해서 극락세계도 건립된 것이다.

우리가 짓는 업행도 원행도 그 주체자는 똑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본래 부처님 지혜와 전혀 다른 마음이 아니다. 단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과보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용심(用心)여하에 따라 중생업도 짓고 보살행도 이루고 보살행의 완성으로 부처도 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저절로 보살행이 될 때까지는 부처님의 지혜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항상 염두해 두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가지신 모든 지혜의 힘을 열가지로 포섭하여 심중지력 또는 심력이라 한다. 그 중에 첫째 지혜의 힘이 ‘높고 그른 줄 분명히 하는 지혜의 힘(處非處智力)’이다. 부처님의 지혜로 높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옳은 일은 용감하게 밀고 나가는 파사현정이 곧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하는 자비 보살의 크나큰 원행이라 하겠다.

동대 학술상·문학상을 모집합니다

- 제 36회 동대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인문과학상-본상 및 기차 사회과학상-본상 및 기차 자연과학상-본상 및 기차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인문과학상-본상50만원 기차25만원 사회과학상-본상50만원 기차25만원 자연과학상-본상50만원 기차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제13회 동대 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시부문-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시부문-3편 내외 소설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시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서 문외버립니다.

게시물 철거요청에 학내제주체 반발

학교, “입시철이니...” 학내제주체, “문제해결이 우선”

학교당국의 교내 게시물(현수막·대자보) 자진 철거 협조요청에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 이하 총학) 등 학내 주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무처(처장=서윤길·불교학),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 관리처(처장=김종욱) 등 4개부서 처장 명의로 교수회, 총학, 대학원총학생회(회장=박정진·정치학 박사 과정 3학기), 각 동아리 회장 등에게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고3학생 초청 교양특강 및 입시 주요사항 설명회' 개최 등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본교 교육환경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내 주체들은 지난 20일까지 게시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게시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오늘(23일)부터 학교당국이 임의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교당국의 요구는 현재 재단의

송총장 연일결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내제주체들의 게시물을 철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교수회측은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수회 명의의 일부 대자보와 플래카드가 훼손되거나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30대 총학생회 이미성(국공4) 부총학생회장은 "현 사태를 야기한 학교당국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약점을 감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며 송총장 연일결정의 부당성을 알려내는 선전 작업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 교수회측의 총장면담 요청에 학교당국은 20여일째 진행되고 있는 교수농성해제와 플래카드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했다.

이에 교수회측은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수회 명의의 게시물을 훼손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교수

회측은 학교당국이 대화제를 거부한 채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게시물 강제 철거를 단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원인제공자인 학교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증거수집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표명해 마찰이 예상된다.

물론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홍보요원이 돼야 할 것"이라는 입학과(과장=오종호) 한 관계자의 말처럼 우수 신입생 유치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학내에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은채 '눈기리고 아동'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학생회 간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자보는 그 대학의 '담판장' 입과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김미경 기자

현 비상사태에 대한 교수회 설명회

교수회, “선거 기필코 성사시키겠다”

후보추천선거 적극 참여로 교권 확보해야



유덕기 교수회장이 총장후보추천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교수회는 경주캠프 설명회에 이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 명진관(A103)에서 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비상사태에 대한 교수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상진(화학공학) 교수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경과보고가 이

뤄진 후 연단에 오른 유덕기 교수회장은 "총장은 동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정통성과 민주에 기반해 선출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교수회는 여러 교수님들의 지지와 격

려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교수회 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김홍철·생명자원경제학)의 성명서 낭독이 이뤄졌다.

다음으로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농성 20일째에 돌입하는 교수회의 입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자 박종원(국민윤리학) 교수는 "학교 당국에 의한 위협과 회유가 심해질수록 교수회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본교는 교권이 유리되고 참다운 학문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교수들이 교수회 선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교수회 오홍석(지리교육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학의 정신은 정의, 자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교수회측은 "현 사태에 대한 교수회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선거가 공정하고 품위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의의를 밝혔다.

생협, 창립 1주년기념 행사 펼쳐

도서 할인판매·오는 27일 학생식당 가격 인하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오는 27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직업매장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다향관, 동국관 등의 학생식당은 27일 하루동안 식사비를 인하하고, 서점은 각종 사전과 단행본 등의 책을 오늘(23일)부터 30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26일에는 생협의 역사와 각종 소식을 전하는 '생협신문'이 제작·배포될 예정이어서 조합원들에게 생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계절학기 최종시간표	이수구분	개설 교과목명	강의시간
98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최종시간표가 내일(24일) 각 대학 교학과 및 교무과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최종시간표에는 강좌 담당교수, 강의실 등 세부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수업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된다. 9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표>와 같다.	교선전공	매스컴과 사회환경과 생명교육사회학	09:30~12:20
	교선전공	영미산문학	
	교선전공	영미문학 배경	
	교선전공	운영체제	
	교선전공	한국사회변혁운동사	
13:00~15:50	교선전공	영화의 이해	
	교선전공	초급영어회화	
	교선전공	초급한문	
	교선전공	한국사의 이해	
	교선전공	영어회개론	
교선전공	교육과정 및 평가	13:00~15:50	
교선전공	컴퓨터 구조		

학생회 선거 소식

문과대
인문학부 - 김형석(2)·조승현(1)조가 각각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사범대
국어교육과 - 김태광(2)·김은혜(2)조가 각각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예술대
미술학부 - 이동철(조소3)·김은정(서양화2)조가 각각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연극영상학과 - 문상철(연출전공3) 을후보가 오인근(연출전공3) 갑후보를 제치고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중앙도서관 2층 과제도서 열람실에 도서대출 반납기가 설치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한학생이 반납기를 이용해 도서를 대출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용·우·상·사자전(가칭) 추진위 결성 학교 위상 높이고 애교심 키운다

본교·건·중·한대 연합 경기추진 ... 2000년 가을 개최 목표

학교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뭉쳤다. 본교를 비롯해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전·현직 응원단장 다섯명이 모여서 2000년 가을 제1회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는 '용(龍)·우(牛)·상(象)·사자(獅子) 전 추진위원회(회장=94년도 본교 응원단장 김종우(응생4), 94년도 중앙대학교 응원단장 소민호)를 결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 3개월동안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주부터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용·우·상·사자' 전 홍보 전단지 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각 학교 총장, 총동창회, 체육부와 총학생회 등에 보내 행사의 취지를 알리고 있다. 이처럼 우선 많은 홍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서명운동을 통해 정당성 있는 근거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학교측의 협조를 받아 99학년도 상반기 까지 각 학교별 특별기구를 설치해 대학간의 논의와 추진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 추진위원회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지는 요즘 추세에 학교에 대한 사랑을 키울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운동경기 응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용·우·상·사자' 전을 통해 1년에 한번만이라도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IVY LEAGUE나 우리나라의 연·교전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우·상·사자' 전은 4개학교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안으로는 각 주체들의 애교심과 자부심을 증폭시키고 밖으로는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경기를 통해 프로 스포츠에 밀려 침체되어 있는 대학 스포츠의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원회 회장 김종우 군은 "추운날씨 탓에 학생들의 호응이 적어 많이 힘들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발전을 위해서라도 '용·우·상·사자' 전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호전무대

앗! 썰렁~

O...유세장은 썰렁했다. 지난 18일 열린 총학 유세가 유난히 썰렁했던 이유는 추운 날씨탓만이 아니라는 데.

알아본즉, 유세장을 스치는 바람보다 더 싸늘한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때문이라고.

채감온도가 영하에 이르는 날씨속에서도 연설하는 후보들을 많은 동양인들이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학생 왈, "이러다가 학생회도 나뉘는거 아냐?"

아파트(?) 기호

O... "이빨 빠진 기호" 교수회 총장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기호를 배정하면서 4번을 제외시켜 기호가 1, 2, 3, 5번이 되었다는데.

이는 4번이 불길한 숫자라 하여 후보자들과 선관위의 합의를 통한 결정 사항이라고.

총장 후보로 나온 분들이 숫자에 대한 미신때문에 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지.

이에 본 호전무대자 왈 "차라리 1, 2, 3, F번으로 하심이 어떠한지요?"

금강산은 푸를까?

O...금강산도 식후경?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일부 관광객의 입국문제로 문제를 일으켰다는데.

문제는 다름 아닌 북한이 평소 불만이 많았다고 조선일보와 KBS기자들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것이라고.

그러나 재협상 끝에 어렵게 이들도 관광을 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에 평소 조선일보의 대북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온 한 시민 한미더 "조선일보에는 금강산이 뭐라고 나올까? 핵기라고 나올까? 기쁨조가 있는 궁전이라고 나올까?"

용도변경

O...부적절한 장소! 요즘 동아내에서 도서관은 공부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라는데.

이유인즉, 선거유세가 주로 도서관 앞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이라고.

공간이 부족한 까닭도 있고, 도서관이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인 이유도 있지만 도리어 학생들이 선거에 짜증을 내진 않음지.

이에 참다못한 4(死)학년 학생 한마디, "유세의, 유세에 의한, 유세를 위한 선거인가?"

전자이력서 완성

취업과(과장=김병수)는 99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신청자 7백여명의 이력과 자기소개서에 담긴 전자이력서를 완성, 오늘부터 1천여개의 기업에 발송한다. 전자이력서는 학교소개, 개인이력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홍보와 더불어 채용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사람 봉사단·SGI연합 학내봉사활동 시작

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SGI(한국불교협회)연합으로 오는 30일부터 학내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쓰레기 분리수거·계시관 게시물 정리 등 학내의 작지만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일에 봉사할 예정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내의 모자란 일손을 돕고, 학생들에게 직접 봉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내골 민주동문회출범 야간강좌 동문 모임

야간강좌를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인 '미리내골 민주동문회(회장=이진선·무역84)'가 지난 14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준비위원회를 구성, 사전 작업을 진행해오다 이번에 결성된 민주동문회는 앞으로 각종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국참사람봉사단 사회봉사 단원모집

- 대상 : 재학생, 교수, 직원
 - 신청서접수기간 : 98. 11. 30(월) ~ 12. 12(금)
 - 봉사활동 기간 : 98. 12. 21(월) ~ 99. 2. 28(월)
 - 접수처 : 학생처 장학과(☎260-3050)
 - 봉사대상단체 : 우수종합 사회복지관 외 50여개 기관 및 단체
 - 봉사결과 : 기간내(3개월 동안)에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점(자유선택, 사회봉사 1학점 Pass)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학기간 중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1학점씩 2학점까지 인정함.

- 개인 및 단체접수를 환영합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대상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장

창립 1주년 생활협동조합 기념 행사

우리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 장 명	기 간	내 용	
식당	1998. 11. 27(금)	다향관 학생	갈비탕(W1,500→W700) ※4,000그릇 한정
		동국관 학생	불고기 백반 (W1,500→W700) ※3,000그릇 한정
		동국관 교직원	LA갈비 (W4,500→W2,000) ※500그릇 한정
		매점	초코파이 (W2,200→W1,500) 포카칩(W500→W300) 체크(W1,500→W700) 전품목 50% (W300→W200) (W500→W300)
서점	1998.11.23~11.30	그루터기	국내사전류 20% 할인 국외사전류 10% 할인 단행본류 15% 할인 (컴퓨터, 시집, 소설류) ※오성식 생활영어 특판 (W160,000 타대학가→W125,000)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금강산관광과 남북교류 **논단**

적대관계 아닌 상호의존관계 모색하자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의 시험운영에 이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관광차원을 넘어 분단 반세기만에 본격적인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모기장식' 제한적 관광개방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까다로운 관광세칙 등 여러 가지 제약속에서 이루어진다. 북한 당국은 관광개방을 통해서 외화는 벌어들이다 자본주의 '해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장전항에서 온정리에 이르는 길에 철조망을 치고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을 막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당국간 직접협약이 배제된 채 남북한 공히 나뉠대로의 '경정분리정책'을 통한 경제논리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교류협력사업이다.

북한 출신 대기업 총수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남북과 금강산 관광의 실현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론'에 따른 경정분리정책의 첫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남북접촉 창구와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경정분리원칙

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투자 및 교역과 관련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의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주영 명예회장은 옥수수 5만톤, 소 1천1마리, 소 운반용 트럭, 승용차 20여대 등 1백40억원대에 이르는 선물을 가지고 방북했다. 그리고 현대그룹은 금강산지역의 독점개발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북한측에 2004년까지 9억4천2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금강산 일대를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이러한 현대측의 금강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IMF관리체계 하에 있는 우리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많은 선물을 주고 과잉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대북 교류에 있어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북한에 제공된 돈이 군사비로 전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많은 실형민들은 돈을 가진자만이 고향을 찾을 수 있고,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냐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회장의 선물과 현대그룹의 대북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많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수많은 아사자

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도와줌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동포애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 점이다. 둘째는 판문점을 통해서 '소폐물'을 성사시킴으로써 북한이 지난 7년 동안 의도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긴장과 대결의 장소로 만들었던 관문점을 남북간 교류협력의 통로로 여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북한 당국의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북한 출신 기업인의 방북을 통해서 남북접촉 창구를 마련하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경협을 통한 남북간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사업은 산술적 계산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민족화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고 반세기 동안 끊겼던 민족의 허리를 다시 잇는 조심스런 첫 발걸음이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은 건실한 협조 하에서 치밀하고 질서 있게 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나 시혜가 아닌지 의



고 유 환
사과대 북한학과 교수

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탈냉전시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 교류 협력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한반도는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대남 인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남한의 체제역량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 현 단계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단기적으로 남한이 시혜자이고 북한이 수혜자일 수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은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남한 역시 수혜자가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교류를 계기로 남북한 당국자들은 냉전시대의 소모적인 '적대적 의존관계'를 청산하고,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상호의존관계'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 가야 할 것이다.

사설

IMF체제 1년을 돌아보며

우리 나라가 IMF체제로 들어간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국가부도'라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되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구조조정, 난항 등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낙담과 좌절의 힘든 시기를 보냈다. 사회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진통을 겪고,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혹은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휴학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모 일간지에서 IMF 협상을 가리켜 '제2의 국치일'이라는 큰 제목으로 신문을 발행한 적이 있다. 그만큼 소위 잘나가던 나라가 순식간에 '부도'를 맞고 국제통화기금의 연속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새 정권을 수립한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등의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모든 국민들의 희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IMF체제 1년을 보낸 작금의 현실은 '없는 자'만의 고통일 따름이다. 5대 재벌에 대한 기업 구조

조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갑작스레 직장을 잃는 사태만 불러일었다. 또한 철거민들을 비롯한 노숙자들, 뒷밭어 고아원·양로원 등지에서 외롭게 사는 고아들과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한 상태이며 금융계에 자금이 남아돌아도 5대 재벌들에게만 돌아갈 뿐 중소기업들의 대출은 사실상 어렵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몸소 체험해 본 이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사실은 가지지 못한 이들의 현실만 더욱 비참해진다. 저마다 앞서 예로 든 노숙자들이나 철거민들, 그리고 무의탁 노인들. 이들에게 다가오는 겨울은 또 한번의 커다란 시련일에 틀림없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이때, 없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이들은 또한 우리 학생들일 것이다. '취업전쟁'이라는 전란 속에서 잠시 눈을 돌려 소외된 계층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경주캠 자율권 확대에 대하여

지난 19일 확대교무회의의 석상에서는 경주캠의 오랜 숙원인 행정업무의 자율권 보장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 등의 중대한 사안들이 실질적 정책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언급됐다.

자율권 확대보장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부총장 권한의 실질적 강화, 교수채용 결정과정 개선, 교과과정 변경 자체결정, 직원인사 배치 개선, 기확보과의 심의조정업무 강화, 각종 위원회의 경주캠 교수 참여 보장 등, 조목조목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게다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본관건립을 위한 설계도면 계약이 이미 착수된 상태이고, 영산관내 미술학과 조소실 신축이 확정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던 자연과학관의 증축과 컴퓨터교육의 투자확대를 비롯한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을 위해 외부업체와의 컨소시엄 형태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언급된 내용 하나하나가 단순히 언급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학교당국의 정책방향이 학내 3주체들에게 열린 공간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바로 지금이 3주체라면 누구나 학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고 그러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의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또한, 총장선거라는 중대한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당국이 발표한 사안이기에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전적으로 무시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면 이 또한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학교당국은 이러한 부정적 시각으로부터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율권 확대논의 과정에서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대학 총장선출 난항

총장선출 문제로 각 대학 진통

방식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

총장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최근 들어 본교를 비롯한 사립대학·국립대학들이 학내 제 주체간의 의견 마찰로 열병을 앓고 있다.

본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부산 동아대는 학생들이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학장실 5곳의 점거 농성에 돌입했으며, 이사장실에서 항의시위를 한 바 있다. 반면 이법준 재단이사는 지난 17일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초 총장후보 대상자 공개모집을 추진중이다. 이에 조영래 총학생회장은 "3주체가 참여하는 총장직선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혀 이 사태 이후 학교측과 학생간의 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안동대의 경우 교수 5인 이상의 추천만 있으면 총장후보로 나설 수 있다. 총장선출은 교수회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이후 총장추천인 8명, 교수운영위원회 8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또한 총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에는 "현직 총장의 임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한다"는 규정이

다. 하지만 총장임용 추천위원들과 교수회가 총장후보를 놓고 의견대립이 심각한 상태이다. 여기에 교수회는 현 이진설 총장의 임명을 받지 않고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를 치워 총장을 이미 선출했다. 이에 현 총장은 교수회의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자간의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호정(행정4)부총학생회장은 "이진설 총장이 여론을 무시하고 재입하려 한다"며 "총장임용 추천위원장은 너무 시달려 사퇴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광대는 지난달 27일 교수회에서 제8대 총장후보선거를 통해 정갑원 교수를 총장후보로 선출했으나, 재단측은 승천은 교수를 이미 내정한 상태에서 오늘(23일) 있을 총장취임식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원광대 한정수 총학생회장은 "교수회만의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구성원전체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학내의 불협화음을 없애는 측면에서라도 단임제로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과 상반된 대학 중에 배재대



를 꼽을 수 있다. 지난 8월 28일 학내 제 주체의 끊임없는 요구로 총장선출 규정이 변경되어 교수·직원·학생·지역인사가 모두 참여한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바람직한 총장선출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그 구성원은 교수·직원·학생·학부·지역인사·동문·재단인사 등 19명이다. 배재대는 3주체를 비롯한 제주체가 참여한 민주적인 선거로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교 또한 타대학의 시행착오와 모범 사례를 거울삼아 제 주체간의 불협화음을 없애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승석구 총장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제 주체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각 주체들은 자기 입정만을 내세우기 전에 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양우 기자

동약론

철거촌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다

민·관 합작한 불법철거 예사 ... '가수용 시설' 등 근본대책 절실



구교(求校)

동약에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낙점과 함께 불교 종합병원·일산 제3캠퍼스와 관련한 재정확보 방안 등 여기저기서 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 '동국발전'을 내건 선거는 요즘 축제의 장이라기보다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처음 동약은 재단의 부당함에 대해 학내주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교수·학생·직원 3주체가 각각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민주화에 대한 열기로 후끈거렸다.

그러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각 주체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수회만의 총장직선제에 대해 당초 학내 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할 것을 주장해오던 직원노조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농성을 해제했고, 학생들 또한 11월 3일 전면휴업 결의대회에서 보였던 열기는 사라진 채 선거유세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총장실 안에 있으면, 운동 학교가 투쟁의 열기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밖으로 나가보면..."이라는 야간강좌 한 학생의 말은 씁쓸함을 더해주기만 한다.

지난 18일 학생회선거 유세장에서 "모든 동국인이 구교운동에 앞장서자"고 외치는 총학생회 후보자의 말은 최근 학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대변해준다. 나라가 어려울 때 벌였던 구국운동처럼, 학교가 어려울 때 벌이는 구교운동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내주체들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슬기로운 자세를 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동국의 장미빛 미래는 외부에서 가져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닐 것이다.

영하의 날씨에 가죽이나 대줄 취급난이 겹쳐 사람들이 더욱 몸을 움츠리며 종종 걸음으로 동약을 거닐고 있다. 풀어야 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지 못하는 자조적인 한숨도 지나치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동국발전도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될 수 있다.

동약을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은 '동국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동약의 겨울이 하루빨리 풀리길 기대해 본다. 박영실 기자



인도 위에 설치된 도원동 철대위 천막농성장이 아슬아슬하기만 하다(좌). 오전동 철대위 사무실 천정의 목골 구조물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우). 사회부



서울에 첫 눈이 내리던 지난 19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의 철거민대책위원회(위원장=최덕자 이하 철대위)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풍당풍당 돌을 던지자 강제철거 방관하는 의왕시청에 돌을 던지자 투쟁에 타올라라 활활 타올라라'는 비장함(?)이 서린 사무실 안의 자료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철거될 때 거의 모든 물품을 유실했다는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될 만큼 내부에는 생활도구가 많지 않았다.

임시방편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엉성하게 지어진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앉아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유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일이 일찍 끝난 사람들은 마당에 불을 피우고 있다.

물이 샌다는 아랫마을 주민의 신고 때문에 형사를 만나고 돌아왔다는 최덕자 위원장은 "제대로 물이 안나와서 밤도 해먹지 못하는 형편에 무슨 물이 넘쳐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에 청랑리에서 왔다는 한 철거민은 "형사들이 다른 속셈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니까 함부로 나가지 말라"고 최 위원장을 다그친다.

지난 10월 30일 오전 7시경 경찰 6백여명, 철거용역 업체인 정원특수(주) 직원 3백여명, 시청과 동서주택 직원 30여명 등 모두 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의해 강제 철거된 오전동의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현재 철거지역 한쪽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총 3가구의 1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전기가 끊기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호소하는 한 주민은 "그나마

우리는 몸이라도 성해서 다행"이라며, 철거과정에서 용역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몸을 다친 사람들의 걱정을 늘어놓는다.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설명하던 최위원장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수원 권선3지구의 가수용 시설 입소식 사진을 보여주며, 가수용 단지를 얻어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또한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폭행, 욕설 등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날 용산구청 앞에서 7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는 도원동의 철거민들을 만났다. 용산구청 앞 인도에서 비닐 천막을 쳐놓고 모두 9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곳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열악한 시설이었다. 또한 도로 옆이어서인지 바로 옆사람의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철거시위 도중 연행된 김범성 위원장의 선고공판이 있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지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농성천막의 존재 이유(?)에 대해 여전한 관심거리인 듯 했다.

지난 4월 23일 강제 철거된 이후로 지금까지 1백60여명이 연행, 10여명이 구속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철거민의 가수용 주거 시설의 확보'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철대위의 박정민 홍보부장은 "그 동안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잊혀져 왔던 것이 안타깝다"며 이후에는 철거민들의 절실함을 알려내고

그 속에서 함께 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민남씨는 "지금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와 같이 재개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주거권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오전동과 도원동의에도 서울의 청랑리, 전농동과 수원의 권선4지구 등의 지역에서 철거민의 생활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97년 1월 13일 개정된 현행 도시 재개발법 제27조 1항에는 '시행자는 재개발 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 구역 또는 그 구역외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앞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불법철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순환식 개발, 가수용단지 건설과 임대주택 분양, 거주민들에게 '선대책, 후철거' 보장'이라는 재개발 지역 주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공약이 현재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고, 철거민들은 언제쯤 예전처럼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에게 첫 눈은 그리 반가운 것만은 아닌 듯하다.

유철주 기자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시대 뒤떨어진 구시대 유물”

이승만정권때 제정...수많은 민중의 인권 유린

오는 12월 1일이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된다. 이에 본사에서 는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폐지 당위성에 대해 두번에 걸쳐 연재한다.

- 1. 국가보안법의 역사
2.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것은 50년 전인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 기도 전이었다. 과연 이승만정권이 다른 중 요한 법을 만들기도 전에 서둘러 국가보안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승만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 아래 한반도 남단에서 미국의 패권을 보 장할 친미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획책하였 다. 그 결과물이 1948년의 5·10단독선거

였다. 단선은 민족분단의 확정이자 친일파의 재집권을 의미했으며, 수많은 민중들이 항 쟁에 떨쳐 나갔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항쟁이었다. '미제 축출'과 '단선 반대'를 내걸고 일어난 제주 민중들의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미군정은 반공폭 력집단인 서북청년단과 경찰들을 앞세워 제주민중들을 탄압하였다. 하지만 14연대의 장 병들은 같은 민족에 대한 진압을 거부하고 불기하였다(1948년10월 이른바 '여순사건')

이렇듯 자주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민중들의 거센 열기 속에서 분단정부 수립의 이데올로기인 반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자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합법(?)적으로 학살하 거나 검거, 투옥할 수 있었다. 반민특위를 주도해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던 노일환, 김육 주 등 13명의 국회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 이처럼 반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민중의 뜻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1949 년 한해동안에만 무려 1백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이적'으로 몰아 해산시켰고, 11만8 천6백21명을 검거, 투옥하였으며 9천명의 군인을 구속하였다.

더구나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내란세력(전두환일당)이 조작한 불법 기관에 불과 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하였으며, 이에 흡수된 반공법 역시 5·16쿠데타로 정 권을 찬탈한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조작된 것으로 '정통성'이 없는 냉전시 대의 사생아일 뿐이다.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의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피해들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민족구성원을 서로 의심케하고 이간시키려는 반인륜적인 악법이 다. 같은 민족이자 통일조국의 한 주체인 북한을 '정부를 잠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민족의 일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진정한 평화통일을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로 1956년 당시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씨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얼마되지 않아 1958년 갑작스레 사형이 집행되었다. 평화통일론이 북의 주장과 같다는 이 유였다. 현재 애국통일인사와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내용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다.

국가보안법은 다음으로 인간의 가장 숭고한 권리라 할 수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는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종교의 측면에서는 신앙의 자 유, 도덕의 측면에서는 양심의 자유, 정치의 측면에서는 정치사상의 자유, 문화예술의 측면에서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로 표출된다. 국가보안법은 인류역사의 도도한 흐름인 '진보'에 '이적'의 딱지를 붙임으로써 우리사회를 반공만을 지상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형적 사회로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파시즘적 획일주의에 빠 지게 하였다.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토론과 대화는 오간데없고 일방적인 매도와 '집단지성'만이 지배하고 있다. 실제 범민련과 한총련의 주장이 북과 관련된 것이라는 단죄 한번으로 무조건적인 토벌대상이 되는 사회. 그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조차 불온시되는 야만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극우공안세력과 언론은 한총련 의 '대중성' 없음을 비난한다. 어떠한 주장이라도 대중중소스가 논의하여 판단케 해야 한 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진정 민족과 자주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에 게는 자주와 통일의 새날을 열어내야 할 시대이다. 땀흘려 일하는 민중이 존중받는 사 회, 민족이 화해와 단결로 번영하는 사회에 냉전 시대가 남긴 마지막 유물, 국가보안법이 있을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그곳은 바고 고난에 찬 분단 시대를 증언할 통일사 박물관!

이 민 우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동국대학교 90년사' 발간

교사편찬위원회(위원장=목정배·불교학)는 개교 9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동국대학교 90년사'를 발간했다. '동대 70년사' 편찬이후 20년 동안의 동국의 발전과 변모를 집대성한 책으로 동국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개교 1백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동국발전'을 위한 자료집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동국대학교 90년사'를 바탕으로 하여 과거·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겠다.

편집자

시행착오 겪으며 성장한 동국의 모습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해야

지난 1906년 명진학교를 효시로 지금의 동국대학교가 있기까지 본교는 수많은 역정과 시행착오를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를 성찰하고 과오를 떨쳐버리기 위한 객관적 지표이다. 따라서 지난 20년간의 동국의 모습을 짚어본다는 것은 각주체들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하고 애교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70년대 후반은 학내외가 정치적으로 진통을 겪던 시기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 금지, 정치활동금지 등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78년 7월 1일 정재각 총장이 취임했다. 정 총장의 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주캠퍼스 건설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다. 신라 문화의 발상지인 경주에 불교를 기반으로 한 본교가 들어선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특히 한의예과를 신설하면서 의과대학이 없었던 본교의 위상을 한차원 높여 놓았다. 한편, 경주캠퍼스 기숙사·도서관이 기공되었으며, 교직원들의 해의연수 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일본 대정대학, 미국의 이스턴, 워싱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정 총장의 퇴임 이후 1982년 황수영 교수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실험대학제를 운용하였다. 실험대학제는 졸업원정제 실시와 본고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이었다. 또한 문교부의 지침에 따른 교수·학생 간담회를 실시했고 계산학사가 준공되었다. 한편, 지금의 해화문(중문)이 완공되었고, 동국관도 이때 준공되었다. 황 총장의 재임 시기는 이른바 동국중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평가된다.

황수영 총장의 후임으로 제11대 총장이 이기관 스님이 86년 2월에 취임하였다. 이 총장이 취임하면서 경주캠퍼스에 의예과가 신설되고 개교 8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박물관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 개관되었고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비가 건립되었다. 또한 재향군인회 부지를 매입

하여 오늘날 개교 90주년 기념학술문화관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당시 본교 산악부는 88년 8월 6일 죽음의 벽이라 불리는 유럽 알프스의 아이저 북벽 등정에 성공, 동국인의 도전정신을 보여줬다. 이 총장 시절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학원자주화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장학금 지급내역 및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학원자주화 투쟁은 교수회가 출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89년 이기관 총장과 황진경 이사장이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구속되면서 본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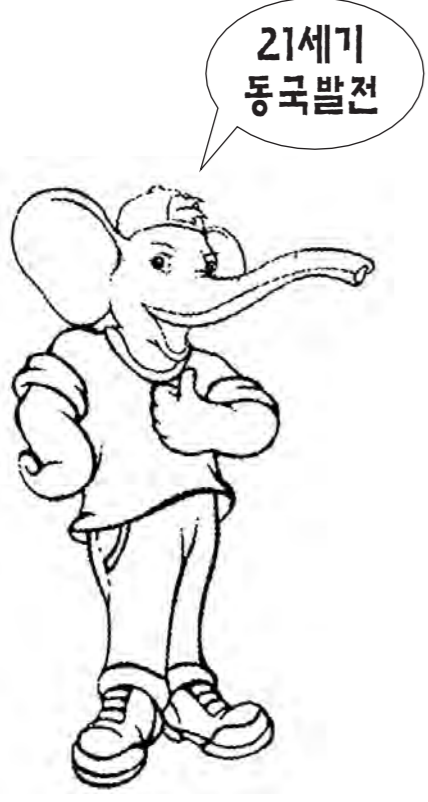
신국주 총장시대가 선임되면서 학내사태는 더욱 어려워졌다. 9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서 신국주 총장시리와 오국근 부총장의 식장출입을 학생들이 저지했다. 또한 13.96%의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은 학교와 학생회가 팽팽히 맞서며 난항을 겪었다. 91년 2월 22일 재단이사회는 민병천 교수를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민 총장 재임시기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경주병원과 인천 한방병원도 개원되었고, 개교 1백주년 기념 사업부가 발족하였다. 한편, 88년 학원자주화투쟁 당시 총동창회비가 납부 중지된 이후 92학년도 2학기부터 다시 부활하게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경주캠퍼스에서는 경부고속 전철 노선 문제와 관련해 본교 종합대책위, 교수회, 총동창회, 민주동맹회, 직원노조, 불교도연합, 학생대책위원회 등이 적극 반대 운동을 펼쳤다. 교수회는 95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 총장 선출방식을 채택했다.

1995년 2월 27일 교수회의 직접선거에 의해 현 총장인 송석구 교수가 취임하였다. 송 총장은 교육부 방청에 따라 96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제를 전격 실시하였다. 개교90주년기념학술문화관 건립, 일산의 제3캠퍼스, 롬비니관, 정보매체센터를 착공하게 되었다. 또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도서관 정보검색의 전산화이다. 또한 일본 동양대, 미시간 주립대학 등의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96년 5월 8일 개교 90주년 기념식을 열었고 윤이상 음악회, KBS열린음악회 등의 기념사업을 개최하기도 했다. 송 총장 시기 패거리 중의 하나는 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정보화를 위해 LAN이 구축되면서 종합보체제를 구축시켰다.

지난 20년간의 동국대학교는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를 평가하는 이유는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이 발간된 '동국대학교 90년사'를 바탕으로 본교가 21세기 세계 유수의 민족사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인택 기자



동국대학교 90년사 내용 발췌

교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동국대학교 90년사'는 1권과 2권으로 나뉘어 1권에서는 △근대 불교전문학교의 출발(1906. 5~1946. 9) △동국대학교로의 발전(1946. 9~1979. 12) △동국중흥의 새로운 도약(1978. 6~1986. 2) △동국의 세계화와 민주화(1986. 2~1991. 2) △동국의 특성화와 교육개혁(1991. 3~1997. 12) 등 역사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한편, 2권에서는 △제1편 : 학사운영 △제2편 : 기구 및 시설 △제3편 : 연구의 활성화 △제4편 : 대학 생활 △제5편 : 학생생활 △제6편 : 부속기관 △제7편 : 동창회 △제8편 : 법인 등 동대 70년사 이후 20년간의 변모된 동국의 객관적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 기구면 에 다다르게 된다. 구축사태와 관련해 각 주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일을 전회회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한편, 같은해 11월19일 전제교수회의에 의해 총장선출제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오국근 교수를 총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90년 2월 16일에는 신국주 교수를 총장시리로 임명하게 된다.

발간의 의의

“역사는 삶의 거울이다”

역사는 인간의 삶을 바라다 보게 하는 거울이다. 역사가 거울이라 할 지라도 그 거울을 항상 맑게 닦아놓고 있지 않으면 뿌연 그림만을 보게 된다. 그 뿌연 그림으로는 역사의 참모습을 헤아릴 수 없다. 인류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도 언제나 과거에서 미래로 향진하는 이정표가 되어있는 주치의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그 역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역사상의 해이다. 그런데 보통 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지나치는 미미한 극점이라고 생각하면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게 된다. 언제나 현재는 있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가하면 과거에서 미래로 지향하는 황금교량이다. 이 황금교량이 부식되거나 남아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의 황금교량이 무너지지 않는 불교교량으로 생각하고 일상적인 관념으로 왕래하고만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교량도 성주공공의 법칙에서 역사의 현재로서 존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금교량인 현재 교량을 초점으로 하여 과거의 시간대와 미래의 무량점을 가늠할 줄 알아야 한다.

대학의 역사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대학은 지성의 산실임과 동시에 지성을 양심과 대칭하는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다. 지성은 지고한 양심을 기저로 하여 자유·평등·자존을 구가하려는 낭만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대학의 역사는 참으로 민족문화, 아니 세계의식을 실현하는 보루가 아닐 수 없다. 흔히 대학은 인재 양성이란 미명하에 교육하고 교육받는 곳으로만 점지될 수 있지만 대학의 합목적성은 고도의 자유문화를 구가하는 인성을 장양하는 도량인 것이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불교적 입장에서 1906년 개교한 것은 보다 큰 깨침을 대학인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 흡수시키려는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각적 자비·평등을 이상으로 하여 왔기에 대학의 응지도 광대한 것이다. 벌써 9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90년을 어떻게 불 것인가.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 대학의 황금교량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감촉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새로운 지척도를 만드는 것보다 고지도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고지도를 처음부터 그려놓은 것이 없다면 감감할 것이다.

역사는 기록하여야 한다. 남겨 보관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록과 보관에 소홀한 지성인이다. 기록이 과거로 보면 보관은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록과 보관을 놓고서 새롭게 보는 분석의 현미경이 있어야 한다. 이 현미경이 현재의 교량이다.

우리를 편찬위원회가 쇠비하고 희소한 기록과 보관 속에서 오늘의 현미경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온갖 애간장을 태운 것은 바로 동국을 사랑하고 지켜가야 하는 신앙이 앞섰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고 자위해 본다.

목정배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이것만은 알아둬시다

구분	현황(10㎡)	구분	규모	현황(개·실수)
교지	14,504	강의실	50명 이하 수용	10
체육장	1,603		51~1백명 수용	96
			1백1~2백명 수용	30
도서관	913		2백1명 이상 수용	7
체육관	346	교수연구실	1인 사용	244
강당	64		2인 사용	3
기숙사	240			
전자계산실	170	세미나실	소형(30명 이하)	3
			대형(31명 이상)	2
			실험실	90

(동국대학교 90년사 2권, 1997. 12. 31 기준)

제14대 총장 후보자 명단

동국대학교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후보자적합성결과 다음과 같이 적격자를 확정 공고함.

- 다 음 -

기호 1 번 조희영 후보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기호 2 번 신현제 후보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기호 3 번 홍치유 후보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 교수)

기호 5 번 신용태 후보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수회 선거관리위원장

98 명사 초청 특강

원만한 대인관계 경쟁력 있는 Job Interview를 위한 말하기

그 해답을 드립니다.

1. 특강대상: 재학생 및 졸업생

2. 일시: 98. 11. 25(수) 16:00 ~ 17:30

3. 장소: 본관 중강당

학 생 처 장

학복위 특강

- 접수기간: 12월 16일(수) ~ 12월 30일(목)
- 강의기간: 12월 28일(월) ~ 2월 12일(금) -7주
- 공개강의: 12월 28일(월) ~ 12월 30일(수)
- 접수장소: 동국대 구내서점(다함관 지하)
- 접수비: 20,000원 동일
- 강좌명:
 - TOEIC : 안박사 TOEIC, SYSTEM TOEIC, LIVE TOEIC, 아카데미 신경향 TOEIC
 - TOEFL : 신경향 아카데미 TOEFL, 신경향 시사 TOEFL, CORE TOEFL,
 - LESTEING : CULT ENGLISH
 - 실무영어 : BUSINESS ENGLISH
 - 어휘 : 거로 VOCABULARY WORKSHOP
 - 제2외국어 : 일본어 초급, 중급
- 강의시간: 1교시 - 9시~10시 20분
2교시 - 10시 30분~11시 50분
3교시 - 12시 ~ 1시 20분

*1. 강의시간 변경될 수 있음.
2. 시간표 및 강의실 추후공고

열네번째 학생복지위원회

98학년도 컴퓨터 겨울 특강

과목	강사	일시	기간	모집인원	장소
한글프로그래밍과 인터넷 사용법	오승현	99.1.4~1.8 오전 9:30~12:30	5일 15시간	50명 20,000원	컴퓨터실습실KI
엑셀 사용법	한상훈	99.1.4~1.8 오후 2:00~5:00	5일 15시간	50명 20,000원	컴퓨터실습실KI
유닉스와 E-mail 사용법 (넷스케이프 E-mail 포함)	신훈철	99.1.11~1.15 오전 9:30~12:30	5일 15시간	50명 20,000원	컴퓨터실습실KI
Visual C++(초급)	김정숙	99.1.4~1.20 오전 9:30~12:3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컴퓨터실습실GC
Window NT	한인	99.1.4~1.20 오후 2:00~5:0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컴퓨터실습실FL
데이터베이스	설승진	99.1.25~2.10 오전 9:30~12:3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컴퓨터실습실FL
JAVA	황순명	99.1.25~2.10 오후 2:00~5:0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컴퓨터실습실GC

- 신청자격: 동국대학교 재학생(학생증 유효 지참)
- 특강장소: 컴퓨터 실습실 GC(해화관 1층), 컴퓨터실습실FL(원흥 2관 지하 1층), 컴퓨터실습실KI(개교90주년기념관 2층)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장소: 해화관 1층 컴퓨터교육원사무실 (☎: 260-3852-3)
- 접수기간: 98. 11. 30 ~ 12. 11 (오전10시 ~ 오후5시, 토·일요일 제외)

*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은 컴퓨터교육원 사정에 의해 폐강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폐강시에는 수강료 환불)

● 단 폐강을 제외한 과목은 접수기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

과목	교재명	출판사	저자	구입처	가격
Visual C++ (초급)	Visual C++ 5.21일 완성	인도북	곽용재(역)	다함관서점	15,000원
JAVA	JAVA 입문	생들출판사	오세만 외 2인 공저	다함관서점	15,000원
Windows NT	마이크로소프트 한글윈도우 NT4	도서출판 대림	임영지, 박현태(역)	다함관서점	17,000원
SQL Server	SQL Server 6.5	대림출판사	정원희	다함관서점	18,000원

컴퓨터 교육원

박현국 교수가 권하는 책



채근담

채근담은 푸성귀 뿌리를 씹듯 아무런 맛도 없는 것 같으면서 오래 씹으면 은근하게 맛이 났다는 옛말들을 모아둔 책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이 책을 접하고 동양의 정신이 품으로 스미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가끔 심란해질 때면 아무 곳이나 펼쳐 몇구절 읽기도 한다. 나는 박현국 교수. 채근담에는 너무나 당연하 말만 짜증 날 정도로 중언부언하고 있다. 그러나 책속의 소극적인 처세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보면 그리 짜증스럽지않은 양을 것이다. 또한 진지하게 이책을 대한다면 결코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가 인격과 도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신의 발현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경문화사, 정가 6천원

논형

이책은 중국 동한의 사상이 왕충의 저

서이다. 그는 "논형에 대해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허망을 싫어하는 정신으로 진위를 바로 잡고 허실을 변증하기 위하여 이책을 저작하였다. '논형'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진심이라고 믿었던 무수한 편견을 모아 이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저울질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유생들이나 일반 지식인들이 깊게 믿었고, 또한 한의학 이론의 근간인 '천인상응설'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자연 현상의 변화와 인간의 행위가 상호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는 옛것을 숭상하는 맹목적이고 교조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사색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경전에 기반을 둔 한의학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왕충의 정신은 참신하게 다가올 것이다.

소나무, 정가 1만 8천원



경주캠 총학 후보자에게 듣는 99년 대학문화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 마련 책임성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이끌어야

학내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문예운동이 일고 있는 시기에 제16대 총학생회에 임후보한 이상섭(불교3)·황재영(수교3)조와 조영호(영어영문3)·최보영(국제관계3)조를 만나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99년도의 학내문화정책과 실천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선 대학문화의 현 주소에 대해 후보자들은 "과거 70, 80년대는 캠퍼스를 하나로 묶어주는 군부독재, 반민주주의 등의 사상적인 이념들이 존재했었다"며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민주정권의 출범, 개인주의 문화의 등장 등이 대학사회에 침투함으로써 대학문화가 상당히 와해된 상황에서, 지금의 대학문화는 정리의 내리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98학년도 학생회의 문화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에 대해 이상섭·황재영조는 "생활자치 구현 아래 캠페인, 체전 등을 개최했으나 학내 주체들을 한자리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와 조영호·최보영조는 "뿔뿔이 흩어진 학내구성원들의 욕구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충족시키려고 했으나 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각각 얘기했다. 이는 대학내에서 개별적인 문화를 공동체문화로 복원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이렇듯 수차례 제기돼 왔던 학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이상섭·황재영조는 "우리는 대학문화의 화두가 돼왔던 저항, 도전, 실험 등을 대자문화로 소화해내면서 학우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조영호·최보영조는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학우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장을 마련해 학우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상섭·황재영조는 대학문화가 제도와 정치적 여건으로 위축되고, 주춤한다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유인원으로 낙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방골의 지성인이라면 시대의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과감하게 개혁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영호·최보영조는 대학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남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디서나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99년도에는 학내 주체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고 참다운 대학문화의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는 제16대 총학생회가 건설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희정 기자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수운 최제우는 문화관 광부가 선정한 11월의 문화인물이 되었다. 1백30여년 전 대구 관덕정(觀德亭)에서 흑세 무민(黑世誣民)한 죄로 좌도 난정을(左道亂正律)을 적용시켜 참형에 처했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운이 살았던 19세기 중엽 한국사회는 국내 지도이념인 유교사상이 한계에 이른 데다 세도정치로 답습으로 관리의 기강이 무너지고 기근의 연속으로 국가 경제마저 파탄되었을 뿐만아니라 국외로는 서양세력이 종교와 무력을 앞세워 압박해 왔던 우리 역사상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격동기였다.

수운은 국토의 동남단인 경주의 벽촌에서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를 절감하여 오랜 방황과 수도 끝에 서양세력에 대항하고 평등사회구현을 위해 마침내 동학을 창도하였다.

수운은 서교인 천주교가 조상의 제사를 반대하고 특히 천당에 가려면 부모 처자보다 자기를 우선하고자 하는 개인 구원

교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후의 영혼구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보국안민과 지상천국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학은 시천주(侍天主)신앙으로 요약되는데 천주란 민속신앙에서 말하는 잡신과 같은 귀신도 아니고 서양의 절대적인 신과도 구별되는 오직 사람 속에 내재한 보편자 신으로 자각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경천사상의 회복이요, 모든 사람은 자기 몸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인내천(人乃天)이라 하여 신분의 평등사상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수운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에 관해 반서양(反西強)의 척사적(斥邪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요망한 서양적'이라 하였고 일본도 '개같은 왜적놈'이라 하여 극단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서양 문물이나 군사적 침략보다는 서학의 종교적 침략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명적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것이다.

반면에 수운은 국내의 타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유교·불교가 당시 동아시아 문명의 사상계의 중심인 중국이 서양에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서학의 강점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선각자였다. 그런 까닭에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에 대해 왜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았고 서교는 천시(天時)를 알고 천

명(天命)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하였던 것이다.

수운은 침입하는 서양세력에 대항하여 척사(斥邪)를 내걸고 보국안민정신을 진작시켜 지상천국건설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걸과를 잃고 방황하고 신음하던 민중에게 새로이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이같이 동학의 반서양 문화사상은 반왕조적(反王制的) 저항의식과 함께 근대화의 정신적 기틀이 되는 근대민족주의, 인간 존중적 인권사상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때부터 근대적 민족국가의 썩이 트고 시민의식 또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동학은 교세 확산운동, 동학농민혁명, 3·1독립운동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민족사 전개과정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수운사상의 또 하나의 핵심은 개혁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운론을 내세워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몽중노소 문답가'에서 동학출현을 기점으로 하여 후천개벽의 새로운 문명의 여명이 라고 단정지었고 시운론적인 역사관을 주장하였다. 그는 지상신선사회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즉 요순과 같은 이들이 다스리는 지배와 피지배가 없는 군사 공동체사회를 만들 것을 주장하여 기존의 존왕주의적 군주주의를 과감히 버렸던 것이다.

이와같이 수운이 살았던 19세기 중엽의 한국사회가 내우외환에 시달렸던 극단의 격동기였다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켄 소위 IMF의 협난한 국제 경쟁시대의 또다른 격동기라 아니할 수 없다. 동학이 서학에 대비한 자주주의의 정신적 주체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주정신을 확립하여 세계 속에 한국을 찾고 한국 속에 세계를 수용하여 국제사회에 우뚝서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최효식
인문과학대 역사철학부 교수



동학운동의 1차 봉기지(오른쪽)와 장흥에 있는 기념탑(왼쪽)

균형과 조화 달하나 천장에



이석장
인문과학대
외국어문학부 교수

루어지는 위성들은 각각 제 갈 길을 돌아가면서 다른 항성이나 위성들을 파괴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를 인간도 이들 우주의 별처럼 서로를 무리하게 간섭하거나 다른 개체를 파괴하지 말고 각자의 본성에 따라 제 갈길을 가면서 상호 균형을 이룰 때 개체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조화롭게 협조하면서 원무(圓舞)하게 된다. 이것이 개체 간의 이상적인 관계, 즉 이상적인 인간관계이다.

'내 자신을 위한 예술'을 주창한 작가 로렌스는 그의 아내 프리다와의 주도권 싸움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그가 스스로 창안한 '별의 균형'이라는 상징적 원리는 그들 두 사람의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너는 내꺼야" 식의 소유나 통제의 관계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 와 사람의 관계가 아닐까.

11월의 문화인물 최제우와 동학을 찾아

동학, 세계화 시대 해법 제시

내우외환에 자주성 강화로 대응 ... 근대 민족주의 의식 발아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수운 최제우는 문화관 광부가 선정한 11월의 문화인물이 되었다. 1백30여년 전 대구 관덕정(觀德亭)에서 흑세 무민(黑世誣民)한 죄로 좌도 난정을(左道亂正律)을 적용시켜 참형에 처했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운이 살았던 19세기 중엽 한국사회는 국내 지도이념인 유교사상이 한계에 이른 데다 세도정치로 답습으로 관리의 기강이 무너지고 기근의 연속으로 국가 경제마저 파탄되었을 뿐만아니라 국외로는 서양세력이 종교와 무력을 앞세워 압박해 왔던 우리 역사상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격동기였다.

수운은 국토의 동남단인 경주의 벽촌에서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를 절감하여 오랜 방황과 수도 끝에 서양세력에 대항하고 평등사회구현을 위해 마침내 동학을 창도하였다.

수운은 서교인 천주교가 조상의 제사를 반대하고 특히 천당에 가려면 부모 처자보다 자기를 우선하고자 하는 개인 구원

교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후의 영혼구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보국안민과 지상천국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학은 시천주(侍天主)신앙으로 요약되는데 천주란 민속신앙에서 말하는 잡신과 같은 귀신도 아니고 서양의 절대적인 신과도 구별되는 오직 사람 속에 내재한 보편자 신으로 자각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경천사상의 회복이요, 모든 사람은 자기 몸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인내천(人乃天)이라 하여 신분의 평등사상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수운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에 관해 반서양(反西強)의 척사적(斥邪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요망한 서양적'이라 하였고 일본도 '개같은 왜적놈'이라 하여 극단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서양 문물이나 군사적 침략보다는 서학의 종교적 침략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명적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것이다.

반면에 수운은 국내의 타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유교·불교가 당시 동아시아 문명의 사상계의 중심인 중국이 서양에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서학의 강점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선각자였다. 그런 까닭에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에 대해 왜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았고 서교는 천시(天時)를 알고 천

명(天命)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하였던 것이다.

수운은 침입하는 서양세력에 대항하여 척사(斥邪)를 내걸고 보국안민정신을 진작시켜 지상천국건설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걸과를 잃고 방황하고 신음하던 민중에게 새로이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이같이 동학의 반서양 문화사상은 반왕조적(反王制的) 저항의식과 함께 근대화의 정신적 기틀이 되는 근대민족주의, 인간 존중적 인권사상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때부터 근대적 민족국가의 썩이 트고 시민의식 또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동학은 교세 확산운동, 동학농민혁명, 3·1독립운동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민족사 전개과정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수운사상의 또 하나의 핵심은 개혁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운론을 내세워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몽중노소 문답가'에서 동학출현을 기점으로 하여 후천개벽의 새로운 문명의 여명이 라고 단정지었고 시운론적인 역사관을 주장하였다. 그는 지상신선사회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즉 요순과 같은 이들이 다스리는 지배와 피지배가 없는 군사 공동체사회를 만들 것을 주장하여 기존의 존왕주의적 군주주의를 과감히 버렸던 것이다.

이와같이 수운이 살았던 19세기 중엽의 한국사회가 내우외환에 시달렸던 극단의 격동기였다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켄 소위 IMF의 협난한 국제 경쟁시대의 또다른 격동기라 아니할 수 없다. 동학이 서학에 대비한 자주주의의 정신적 주체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주정신을 확립하여 세계 속에 한국을 찾고 한국 속에 세계를 수용하여 국제사회에 우뚝서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최효식
인문과학대 역사철학부 교수



동학운동의 1차 봉기지(오른쪽)와 장흥에 있는 기념탑(왼쪽)

영상매체비평

- 광고편 SK 광고

“막연한 이미지보다는 제품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구매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속성이나 특징만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 오랫동안 형성된 제품의 이미지가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제품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든 기업에도 존재한다. 똑같은 가전제품도 대우가 만들면 괜히 튼튼할 것 같든지, 자동차는 왜 현대가 가장 좋을 것 같든지 등의 인식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그 상표나 기업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기업들의 광고 활동은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광고의 소구(訴求) 내용도 많이 변했다. 장기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이미

지 광고 보다는 당장에 돈이 되는 구체적인 제품 광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만 보아도 믿음이나 동반자라는 추상적인 가치 보다는 수익률이나 자금 운용의 안전성 등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제품 내용을 알릴 수 없다는 과제를 간파할 수 없게 된 일부 기업들의 광고 전략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멀티 스폿(Multi-Spot) 광고들이다. 물론 지금까지 멀티 스폿 형태의 광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개념은 하이트나 조리품 광고처럼 같

은 컨셉트의 광고들을 여러편 만들어 동시다발로 방영한 것이라면 요즘의 광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각각의 광고에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SK주식회사는 직장인, 아이들, 가족 등 다양한 고객들의 모습을 경쾌한 노래와 함께 삽화 형식으로 보여주는 기업 이미지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언제나 고객들과 함께 하는 자사의 고객사랑을 메시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SK는 이 광고와 함께 엔크린 보너스 카드를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동시에 방영하고 있다. 무료보험가입에서 다양한 보너스 제공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고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통화감도의 우월성을 다소 과장된 상황 설정으로 보여준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이제는 활인된 국제전화 서비스, 가족간의 무료통화 등 실제적인 서비스 내용을 알리는 광고들을 기존 스타일의 광고와 병행해서 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의 감성과 구체적인 제품 정보의 이성. 기업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 소비자들 역시 막연한 이미지 보다는 제품이 가져다 줄 이점을 생각해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요즘이다.

양웅
금강기획 차장

“새하얀 세상과 만나고 싶다”

눈의 미학 ... 무위 속에 깃든 질서



첫눈이 내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많은 사람들은 곧잘 눈과 동심을 연관시키곤 한다. 첫눈이 내리는 날 사람들의 표정은 흡사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다. 눈이 내리는 그 순간만큼은 순수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어린 날의 즐거움,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한 번 돌이켜보자.

‘첫눈’이 내리면 동악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녀와의 만남, 그녀와의 이별, 그리고 첫키스의 추억.
△잊어야 할 그 사람의 얼굴.
△첫눈이라고 여기지 첫 남자친구와 싸돌아 다니던 기억이 나네. 그때가 아마 본고사 시험보기 전날. 예비소집이었지? 예구 예구, 그 다음날, 난 바보였다.
△이쁘지 않은 나의 손뼉에 들인 짝짝하게 웃고 있는 봉숭아꽃! 아오~! 이뻐 죽겠어!
△창 밖을 보면 눈은 오는데 펜실리 마음만 울적해. -잠 못드는 밤 눈은 내리고.
△포장마차 우동! 첫눈 오는날 그 애랑 손 꼭잡고 눈 맞으며 갈다가 포장마차에서 언 몸 녹이며 같이 우동 먹고 싶으니까.
△비(悲)
△눈, 영화, 고백.
△첫눈 오는날 귀여운 강아지 보았다. ^^
△첫눈을 먹으면 사람이 이뤄진대나 어쩔대나...

누구나 한 번쯤 눈이 어떻게 내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동요는 선녀들이 꽃송이를 뿌린다고도 표현했다. 하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무슨 무슨 설이라고 명명된 눈의 생성원리를 배우게 되고 하늘에서 누군가 뿌려주었거나 하는 환상도 깨진다. 여기 눈에 관한 짧은 동화가 있다. 이 동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환상을 가져보자.

‘눈’에 관한 이런 얘기도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한 후, 어느날 하나님은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그 허전함을 채울 무언가를 생각해내도록 했다. 천사들은 모두 골똘히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작고 희미한 후광을 가진 어린 천사 하나가 하나님을 놀라게 했다. 카롤리노라는 그 천사는 “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만약 비가 언다면 이렇게 될거예요”라고 말하며 가볍고 하얀 가루들을 구름위에 뿌렸다. 반짝이며 구름위로 소복히 떨어지는 가루들은 보기만 해도 아름다웠다. “이건 눈이예요. 겨울에 이 하얀 눈이 내리면 얼어붙은 땅을 담요처럼 덮어서 나무를 지켜줄 거예요. 사람들은 눈송이를 모아서 길증을 없앨거구요, 이 하얀 수에 품은 모든 소음을 부드럽게 해서 요정의 나라와 같은 신비한 세계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은 신나게 눈싸움을 하겠죠.” 하나님은 카롤리노의 생각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 뒤로 카롤리노는 눈을 담당하는 천사가 됐고, 가끔씩 게으름을 부리거나 늦잠을 자서 사람들이 안타깝게 눈을 기다리도록 만든다고 한다. 최은진 기자

향박눈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에서 퍼붓듯 내리는 마른 눈들이었다. 방은 거사는 아까부터 그 눈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다. 바람도 없는 허공 속이지만, 눈송이들은 무슨 뜻이나 목적이 있는 것처럼 활기있게 펄펄 날리고 있었다. 촛문처럼 빙글빙글 운몸으로 원을 그리는 눈이 있는가 하면 겁 먹은 듯 전신을 움추리고 떨어지는 눈도 있었다. 더러는 체념한 듯 모든 것을 내맡긴 몸짓으로 내리는 자도 보였다.

그 눈송이들은 제각각 공중에서 자기 길을 끌고 내려와서는 힘 안들인 착지를 하고는 했다. 마치 낙하산병처럼 사뿐히 내려와서는 끌고 온 길들을 접는 것이었다. 방은은 그 눈 내리는 정경을 취한 듯 어린 듯 지켜보다가, “아, 탐스러운 눈송이구나! 솜이 솜이마다 땀 고이는 떨어지지 않는구나!”하고 깊은 탄성을 토해냈다.

결코 판공에는 떨어질 줄 모르는 눈송이들, 방은이 보기에 그 눈들은 정해진 자기자리에 와서 분명 안착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희뿌연 허공을 가득 메우며 어지럽고 혼란스런 모습으로 내리는 강설에도 보면 불수록 무슨 질서가 있었다. 질서는 언뜻 보아 질서가 깃들지 않은 무위 속의 질서라고나 할까. 그 눈들은 제 각각 마음 먹은 대로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혼란과 무질서 상태를 스스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찍이 방은은 눈 오는 정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 깨달음을 얻었다. 눈 한송이 한송이가 어김없이 제 떨어져야 할 자리에 떨어지다는 자연의 큰 이치를 보았던 것이다.

옛그제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다. 일기예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느닷없다 싶게 내린 눈이었다. 그것도 지난 여름의 기습폭우처럼 순식간에 자욱하게 도심에 뒤덮여 내린 것이다. 도로와 건물 사이 골목은 그 눈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 남짓의 강설이었고, 또 땅위에 쌓이기 보다는 금방 녹는 단명의 눈이었다. 방은은 거사에게 깨달음을 던져 준 그런 마른 눈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내 하교 길에 맞게 된 그 눈 역시 모두 자기 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눈이었다. 중문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위에 머리를 부딪고, 아니 운몸을 던져 떨어지는 눈송이도 있었고, 막 누렇게 물든 잔 잎들을 털어낸 아카시아 나무의 가지에 슬며시 궁둥이를 들이밀고 앉는 눈도 있었다. 그 눈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자리에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뜻밖의 반가운 친구처럼 그 눈 내리는 정경을 보면서 나는 문득 방은의 저 옛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강설의 모습을 그와 같은 생각과 눈으로 바라보는 일은 별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방은의 눈구경을 화두로 삼아 오늘날까지 회자되도록 만들지 않는가 어찌 눈 내리는 모습 뿐이라. 자연의 한량없는 모습과 일들을 유심히 보는 자에게 늘 자연은 말없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다. 다만 일상에 찌든 나머지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만나지 못할 뿐이다.

라니나로 혹독한 추위가 예고되는 올 겨울에 눈은 또 몇 번이나 내릴 것인가. 아마도 그 때마다 나는 도시 외곽으로 눈 구경을 나가며 이렇게 자문자답 할 것이다.

“과연 자기 자리에 어김없이 떨어지는 눈처럼 오늘 나는 내 자리에 정확히 잘 내리고 있는가”라고.

홍신선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눈에 관한 짧은 생각
책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어느날, 8살난 마크가 창 밖을 바라보니 환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마크는 그 중 눈송이 한 줌을 주워다 냉장고에 넣어두고는 훌륭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동요 - 눈
펼쳐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솜이솜이 하얀눈을/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 중 하나일 것이다. 선녀님들이 뿌려주는 눈송이로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들과 눈싸움도 하고, 이번 겨울 이 노래를 부르며 동심의 세계로 달려가 보자.

영화 - 러브스토리
하얗게 눈이 쌓인 공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인 영화. 부잣집 아들 올리버와 가난한 빵집

자이스닉

학교안에서
동그라미 정기전
사진에 예술 연구회 동그라미는 제 29회 정기전을 갖는다.
총 15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정기전은 교외전과 교내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교외전은 지난 20일까지 을지로 입구역의 하늘공원에서 이미 성황리에 마쳤다.
하늘, 구름, 풍경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사진작품이 주를 이룬다.
오는 25일까지 학생회관 2층 연화원에서



미술학부 과제전
미술학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불교미술, 조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과제전은 미술학부에서 가장 비중있게 준비하는 것으로 작품 수준도 높다고, 또한 관람자들에게는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Drawing Book이라는 그림책도 나눠줄 것이라고 한다.
학년별로 작품 전시기간도 다른데, 1학년은 전시기간 첫째주, 2학년은 둘째주, 3학년은 셋째주이다.
오늘(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



마음소리
경주퀵수화동아리인 마음소리가 일곱 번째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한결 같은 마음, 수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발표회를 준비하며 공연을 소개하는 7기 회장 정혜영씨.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마음 소리는 경주퀵 유일의 수화동아리로 줄곧 장애인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자리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겠다고 약속한다.
오늘(23일) 오후 5시 30분 원화관 소강당1에서



메아리

사빠띠스파

▲멕시코 정부는 1992년 농지개혁법을 과거 1971년 농민과 원주민들의 혁명을 통해 얻은, 토지의 공동소유권을 농지의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유화하여, 이를 쉽게 처분할 수 있게끔 개정했다. 이로 인해 토지가격은 급락하게 되었으며, 거대자본과 지주자 이를 독식, 농민과 원주민들은 토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농민과 원주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땅, 생존권을 박탈당한 그들은 분을 참지 못해 1994년 1월 1일 디에르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이들이 바로 '사빠띠스파'이다.

그들의 주장은 사유화, 교육투자 및 복지정책의 축소, 노조파괴, 낮은 임금과 높은 이율, 자본의 초국가적 이동, 자연의 상품화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어느새 전세계로 확장, 오늘날 '세계 운동'이 되었다.
▲네트(net)를 이용한 대표적 저항단체인 '베드 서브젝트' '사이버 펑크' '해커' '전자프린터이재단'의 주체는 주로 백인, 지식인층, 엘리트, 재력가로 사회의 상층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빠띠스파의 주체는 이들과는 달리 그

주체가 억압받고 배제된 원주민과 농민, 그리고 도시 인텔리이다. 다시말하자면 사회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연대를 이루고 있고, 그 연대를 통해 합친 투쟁을 벌여나간 것이다. 그들의 연대는 결국 그들의 주장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갔고, 하나의 거대한 공감대와 연결고리를 갖추게 되었다.
▲재단이 일반적으로 총장재임결정(지난 10월 22일)을 한 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 학내 주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수회는 대학의 중심주체는 교수라며 '교수 직선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직원노조는 직원노조 나름대로 '총장 추대위'를 통한 총장선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계획을 밝히라고 외치고 있다. 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한 채 교수회와 직원노조 중간에 끼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직원·학생간의 연대는커녕, 지금 동악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파로국밥'이다.
▲사빠띠스파가 그들의 주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등의 '전자 미디어'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시 인텔리와 원주민·농민간의 진정한 연대가 자리잡고 있다. 동악의 주체들이 진정 '재단의 속서구 총장연임결정 무효화'를 원한다면 문턱야만 한다. 교수는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하고, 직원은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투쟁을 펼쳐야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교수·직원·학생간의 진정한 연대, 튼튼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시기이다. 김용환 취재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게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학생회와 학생간의 거리감 상호의사 교류로 극복해야

여름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불볕 더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교정 곳곳엔 늦가을색이 완연하다. 빨강계 노랗게 익은 단풍들과 바람에 날리는 낙엽은 아무리 무심경한 사람이라도 한번쯤 다시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운치가 있다. 요즘 동악에 이 단풍만큼 알록달록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각 단과대 별과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을 알리는 공보 대자보들이다. 이들 대자보들은 고운 색지에 한지, 스티로폼 등으로 장식되어 지나가는 학우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데 이런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생회를 준비하는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일반 학생들 개개인의 생활에는 별 상관없는 축제 때 사업준비를 하는 곳이라든가 더 심한 경우에는 집회나 참가해 등하고 길에 귀찮게 걸음이나 당하게 만드

는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생회 선거에서 제 1의 과제는 단일 후보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50%를 넘기는 것이 되고 있다.

IMF시대,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겨울, 집안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재학생들과 '내 코가 석자'인 예비 졸업생들, 개개인의 생활만으로도 바쁜 사람들에겐 학생회는 어떻게 다가갈까 할까?

학우들을 대신해 투쟁해주는 공간이나, 복지사업 몇몇을 이끄는 공간 정도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앞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학우들 개개인의 목소리(소모임 학회 등)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고, 개개인이 하고 싶은 일, 관심사를 풀어내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곳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학생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해야한다.

추위에 떨어지는 낙엽 마냥 동악 곳곳에 붙은 대자보들은 이런 학생회들 나름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런 의사소통의 노력이 학우들의 좀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박지연 (사과대 사과계열)

어수선한 학생회 선거운영 올바른 선거문화 도모해야

이제 선거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각단대 선거가 거의 끝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정을 울리던 음악소리와 선거운동학우들의 그룹댄스(?)가 사라지자는 싶더니 이제는 총학·총여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스피커와 마이크가 등장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후보들의 결연한 합성을 학생들에게 약속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수업시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지지호스의 음성들 또한 듣는 이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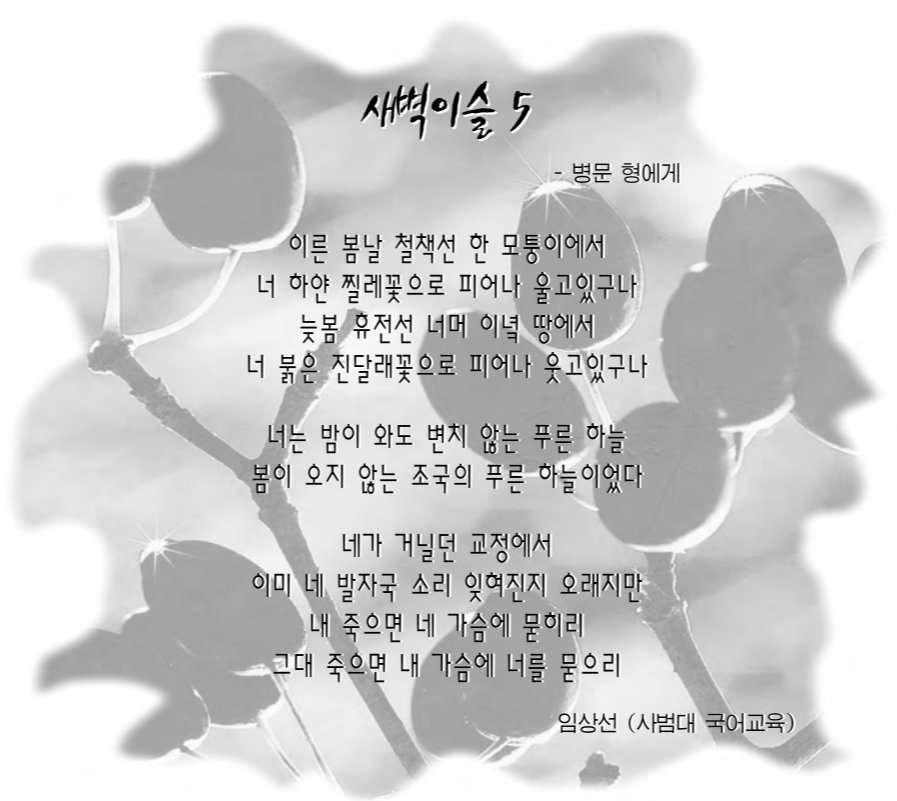
더욱이 선거가 끝난 단대 후보들의 자보와 포스터 플래카드 등이 교정 이곳저곳에서 뒹굴고 있고, 벽면을 가득메운 포스터들이 포스터전시화장을 방불케 한다. 학교가 너무 어수선하다. 학우들을 대표하고 올바르게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오히려 교정을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대책은 없을까?

마이크를 들고 후보를 선전하는 것은 수업이 없는 아침 이른 시간, 오후 늦은 시간에 하고, 학우들의 강의 시작 전후에 강의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조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각 단대 후보들은 승패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뿌린 전단지들은 수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대학생은 지성인이다. 지성인답게 행동하자.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이 아쉽다.

장연순 (법정대 법정학부)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은 자제합시다 김예지 (사과대 사과계열)



소나기 내가 겪은 IMF 1년

△92학번, 고등학교 경쟁률 2 : 1 대학교 경쟁률 5 : 1 취업 경쟁률 20 : 1 But 우리는 영웅이다. 난세에 진정한 영웅이 나온다. △돈벌어 보려고 휴학했었는데, 가산까지 탕진하고 말았다. △IMF전 하루용돈 5천원, IMF후 하루용돈 2천원.(저녁은 굶고 있다) △I: 이런, M: 미친놈들, F: 꼭 때려줄까 보다. △작년겨울 기름값이 두배로 올라 파카를 입고 갔다. △반미자주 기지들고 미국놈들 물어내어 민족자주 쟁취하자! △친구들이 좌뻑하게 변했다. △미국놈들 더 미워졌다. △형 4학년, 큰누나 4학년, 작은 누나 3학년, 나 1학년. 아버지께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아주 어렵게 말씀하셨다. 다음 학기에 군대를 꼭 가란다. △현대 사태때 무척 겁먹었다. 우리집이 울산이어서. △노숙자, 실업자, 정리해고 등 모두 IMF 때문에 수없이 늘었다. △방학때 아르바이트 자리 없어서 신나게 집에서 방바닥만 긁었다!



△난 마냥 굶었네. △IMF라서 시주돈이 안들어 오는지, 이번에도 조세사는 소립자가 됐다. △술값 걷을 때 정말 괴롭다. △용돈벌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아버지의 일자리를... 얼굴 깊숙히 눌러나 버린 아버지의 주름살을 떠올리면,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집은 되지 말아야지. △용돈 인하 거절할 인상 △IMF인데, 도서관 난방좀 적절하게 틀어주세요.



동악광장

다양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columns for items and prices.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columns for items and prices.

목격글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아의 스무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가고과 주영이의 생일 많이많이 축하해요. -kfe △첫눈 오는데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주원아. -98형자 △뒤늦게나마 부부사기도바단 당선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국교과 아무개 △권병성군의 생일이예요 생일 축하해. -02 △15기 디담 짱 장원이 축하해! 열심히 해 누나가 도와줄게. -주연 △OGG탄생을 축하해요. -97 썩~ △민주와 승진의 생일을 뒤늦게나마 축하! 멋진 친구들이 되길... -ionia △취준과의 50일을 축하합니다. -동국대 슈퍼스타 △28일이 피노키오를 닮은 한영이의 생일이래요. 축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린이 힘내! -경선 미경 △원기야, 석근아! 힘들겠지만 최선을... 계열 짱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잖아. -숙 △앞구리가 시린 현정·정은·혜원·선희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Who? 온방글 축하합니다 △불교학부 1학년 김서리(일명 개구리)의 생일이 11월 24일입니다. 생일(개구리의 태어남)을 모두모두 추켜주세요. -6기 이그들 일동 △숙현아, J·Y 이랑 백일 축하해. 정말로. -혜주·영숙·현지·삼미·희정 관경 97 △혜운선배 생일 축하해요. 널 위해 준비했어! 바로 나! -이쁜 숙이가 △대훈아! 11월 21일 니가 엄마 배를 뺀 차고 세상밖으로 나온 날이로구나.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이 누나가 미역국 끓여 주마. -경희, 수정, 미진, 기명선배 △11월 21일은 '송'S birthday입니다. 참

동문칼럼 정신적인 힘 양명진 (수학교육 88졸·양진학원 원장) 석장동 도로 위에서 날아빠진 청바지를 입고 짧은 꿈과 마음을 가졌던 시절. 그 10년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10년전 학우들과 통기타와 막걸리로 인생을 논하던 그때가 너무나 생각이 나는군요. 내가 가르친 많은 학생들이 본교를 졸업하고 우리 학원의 어엿한 선생님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세월이 유수와 같구나 하는 심정을 새삼 느낍니다. 지금쯤 캠퍼스 나뭇가지는 얼마남지 않은 나뭇잎들이 차가운 바람속에 휘날리며, 따뜻한 봄을 기다리겠지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젊음을 발산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학교환경 속에서 후배님들이 겨울나머처럼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이 힘들때면 옛 학창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는 캠퍼스를 찾아가봅니다. 그리고 벤취에 앉아 담배를 피며 젊은날의 추억을 회상하면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가곤 했습니다. IMF로 인해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는 후배들에게 '타이타닉'에 얽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수장된 후에 어느 미국신문에는 두 개의 그림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배 옆부분이 갈라져 바다속으로 잠몰하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비좁은 구멍 보트에서 승객들이 아이를 안고있는 한 여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조금씩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그림 모두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그림 밑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었죠. 첫번째 그림에는 "인간의 허약성이며, 자연의 막강함이며!"라고 써어 있었고, 두 번째 그림에는 "자연의 허약성이며, 인간의 막강함이며!"라고 적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서로 배려할 수 있음이 막강하고, 위기상황을 헤쳐가는 인간의 지혜가 막강한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힘보다 정신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도 학창시절에 어떻게 정신적인 힘을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국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점을 발판 삼아 정신적인 힘을 키워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구멍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힘을 키우라고 다시 한번 후배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연(송)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5인의 악동들 △수경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동국 배드민턴 일동 △사랑하는 혜경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11월 21일. -영이천사 △11월 29일은 보영이와 우혁이의 2천일 이랍니다. 닭살꺼풀 영원하기를... -윤미 △잠옥아!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겨레사랑 동기들 △금년에 졸업하시는 TIME 선배님들 Congratulations! -TIME 사 △김혜진! 너의 스물한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근 맥일동 △국제통상학과 김해옥(95학번)의 학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국·통 95일동 △국포이 니 생일 축하한데이. -너의 친구 주영이가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소리 8기 모두 떨지말고 잘하길 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떨고 있는 6기 △'희곡의 이해' 연극 같이 한 12조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투쟁에 모범 한문학과 여러분 수고하세요. -총 △동국연극회 제6회 졸업생 환송공연 '영화관, 유리동물원 그리고 블루마운틴'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해ანი형! 수고하세요. △정희야, 수고 많았다. -마정가 Z 그리고... △멋진 정호선배, 이제 선배 불 날자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요즘 힘든일이 많다 하던데 힘내시구요. 입관시절 잘 보길 바래요. -항상 힘이 되어 주고픈 BA가 △어스퍼니 이정재 수교과 새내기 우리 승수!! 군대를 그렇게 빨리 지우내해 가다니 군대가서도 씩씩하니 잘해내길... -수교과 귀여운 커피를 △제규야, 아픈 거 빨리나아, 씩씩하게 학교 다녀와! -0417 △성민아, 미안하다. 많이도아 줘야 하는데 내맘알지. 이제 열심히 도와줄게. -훈